

學歷病과 大學入試 改革*

—아시아 各國을 中心으로—

馬 越 徹

(名古屋大 教育學部)

현재 아시아 각국에서는 高等教育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大學 進學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살펴 볼 때, 앞으로 大學教育 機會의 擴大와 함께 大學教育의 실질적인 質 維持 및 改善을 어떻게 조화롭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숙제일 것이다.

1. 머리말

한마디로 아시아라고 말을 해도, 아시아는 너무나도 多樣하기 때문에 一律적으로 論할 수는 없다. 入試制度라 하여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손쉽게 다루기가 어렵다. 나의 念頭に 있는 아시아는 고작해야 東아시아의 韓國·中共 그리고 東南亞의 亞시안 諸國(예컨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머무를 정도이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에 共通되는 現象으로 근래의 눈부신 高等教育의 發展을 볼 수가 있다. 歐美 諸國의 高等教育이 停滯에 直面하고 있는 現況에 비추어 보던 이들 아시아 諸國에 있어서의 高等教育의 擴大는 驚異의이라고 할 수 있다.

韓國에서는 1980 년대에 大學生 수가 百萬 명을 돌파했고, 大學院生 수에 이르러서는 그 質

數가 日本을 追越하고 있다. 中共에서는 ‘空白의 10年’으로 일컬어졌던 文革을 清算한 1970년대 후반에 전국 통일된 大學入試도 부활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고등교육기관 수는 1,000 개교, 학생 수는 200 만 명에 이르고 있다. 눈을 東南亞에 돌려 보면 각 나라에서 대학의 新設, 특히 大量의 학생을 收容할 수 있는 開放大學의 設립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 諸國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놀랍도록 높아 정부도 계속 새로운 대학들을 설립해 가고 있다. 그런데도 大學의 門은 변함 없이 좁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大學入學者의 選拔方式이다. 入試改革에는 萬能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試行錯誤의 勞苦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 있어서 入試競爭의

* 이 글은 延世大 教育學科 金蘭洙 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배후에 도사려 있는 學歷社會의 문제점과 入試改革의 動向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 學歷病

오늘날 어떠한 社會이든간에 크던 작던 學歷社會化되어 있고 學歷이 意味를 갖지 않은 社會는 없다. 그 가운데서도 아시아 諸國에서는 學歷이 갖는 意味는 크다. 대학 졸업의 學歷은 개인의 장래를 결정짓는 큰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 諸國의 高學歷志向을 설명할 수 있는 假說로서 英國의 社會學者 도아(Ronald P. Dore)가 제창하고 있는 '學歷病(diploma disease)'이라는 觀點은 매우 큰 참고가 된다. 그에 따르면 學歷獲得競争은 工業化를 뒤늦게 시작한 나라일수록 치열함을 더 한다고 한다. 즉 아시아와 같은 後發國일수록 學歷이 갖는 意味가 크고, 學歷 獲得을 위한 대학 진학 경쟁은 激化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先進國의 경우에는 大學을 포함한 학교 제도의 정비보다는 社會의 工業化가 先行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大學卒이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生業을 갖는 데 필수 조건이어야 할 까닭은 없었다. 學歷이 취직을 하는 자격 요건으로 된 것은 公業화를 시작한 다음에도 상당한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기 때문에 學歷社會化는 서서히 형성되어져 나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2차 대전 후에 建國을 開始한 아시아 諸國에서는 工業化라는 經濟的 變化가 일어나기 전에 獨立을 契機로 政治的 變化가 일어났다. 즉 '民主化'라는 政治的 原理에 터해서 教育制度의 導入·整備가 社會의 工業化보다도 앞서 이루어져 나갔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産業社會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人材가 학교 제도를 통해서 공급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學歷이라는 라이선스가 就業의 必須資格이 된다. 따라서 學歷獲得競争은 점차적으로 에스카레이트 되어서 中卒보다 高卒, 高卒보다도 大卒에 이르러 國民의 進學 要求는 高度化되어 간다. 끝내는 大卒學歷 所持者조차도 大卒者에게 걸맞은 職業에 들어설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전에는 高卒로 就職해 있던 사람도 직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大學進學을 서두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學歷의 에스카레이션 현상을 도어 교수는 '學歷病'이라고 부르고, 後發 工業國일수록 이러한 病勢는 深刻化되는 것으로 分析한 것이다. 요컨대 英國보다는 日本, 日本보다는 韓國이나 東西亞 諸國쪽이 學歷病의 症勢가 惡化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다. 이리하여 學歷病이 진행될수록 그만큼 학교는 본래의 '教育' 機能보다도 '選別' 機能이 강화되어 病은 점점 더 重症化된다는 것이 그의 '學歷病'論의 줄거리이다.

확실히 學歷病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諸國에 두드러진 현상이고, 學歷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大學入試 競争은 도대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을 단절시켜서 학교가 본래 지녀야 할 教育 機能을 회복시킬 수 있는 特效藥을 발견한 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가장 급진적인 代案으로서 '脫學校論'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 그 자체를 잃게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남은 길은 학교의 존재를 전제로 한 改革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도어 교수가 내놓고 있는 약 처방도 그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제안의 첫째는 就職 연령을 이르게(늦어도 15~17세) 하여서 社會的 選別은 '職場'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 高等教育은 취직 후 필요에 따라서 받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어떤 選別이 필요하게 되면 受験 공부의 對象이 되지 않는 방법, 예컨대 適性檢査·추천·특수한 테스트 등을 사용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쓰게 되면 학교는 受験 準備를 위한 교육이 아닌 본래의 人間 形成을 위한 教育을 되찾게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는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考案한 배후에는 文革期의 中共에서 실시한 入試改革이 그의 念頭 속에 있는 것 같다. 당시(1970년 전후) 中共에서는 教育 年限의 短縮, 全國 統一入試의 廢止, 中等學校 卒業者의 生産勞動에의 從事, 직장의 추천에 의한 大學進

형 등의 改革이 계속 실시되고 있던 때여서 마치 도어 교수의 꿈이 현실화되는 것같이 보였다. 도어 교수는 “科學를 발명한 中共이 이번에는 試驗 그 자체를 廢止하였다”라고 絶讚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그 꿈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文革에 終止符가 찍혔을 때, 中共에서는 세계에서 매우 드문 全國 統一競爭入試가 復活한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꿈이 깨진 도어 교수는 어느 강연회 석상에서 “나는 더 이상 中共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그만 두었습니다”라고 다소 自嘲風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3. 大學入試의 다섯 類型

아시아 각 나라에서는 學歷病의 폐해를 비난받으면서도 中共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入學試驗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길은 입학 시험 방법의 개혁밖에 없게 된다. 나라마다 各樣의 改革이 考察되고 있지만 改革의 要點은 다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社會 成員이 이미 있는 制度를 ‘公正’하다고 보는가? 둘째는 그 制度가 참으로 ‘能力’ 있는 인간을 선발할 수 있는가? 즉 ‘公正’ 原理와 ‘能力’ 原理를 어떤 방식으로 入試制度에 具體化하느냐가 문제이다. 아시아 각국에서 채용되고 있는 大學入試의 方法으로는 대충 다음 다섯 種類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들을 組合한 것이 한 나라의 入試制度라고 할 수 있다.

1) 無試驗 모델

이 방식은 대학 입학자의 선발에 試驗을 치르지 않는, 이른바 門戶開放에 가깝다. 그러나 시험이 없다고 해서 입학 희망자 모두에게 입학을 허가할 수는 없다. 開放大學(放送·通信大學)의 입학자 선발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等학교 졸업자격을 가진 자들에게 無試驗으로 先着順으로 입학을 허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高等教育 機會를 널리 국민에게 開放한다는 데 뜻이 있으나, 定員에 限度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다지 有効하지 못하고 高度의 能力을 지

닌 人材를 精選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2) 추천 모델

중등학교나 직장의 추천에 따라서 입학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추천 입학제를 채택하는 경우, 入學 定員의 一定 比率를 추천된 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文革期의 中共에서와 같이 입학 정원의 거의 전부를 직장의 추천으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추천 입학 모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누가 추천하는가, 둘째로 무엇을 基準으로 추천하는가 등이다. 學力만을 추천의 基準으로 하면 競爭入試와 다를 바가 없게 되고, 學力 이외의 要素를 加味하게 되는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評價하여야 하는가가 늘 문제로 된다. 또 大學側이 이 모형을 채택하는 때에도, 指定機關(校)에서 추천된 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우와 不特定多數의 추천된 자 중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審査(書類·面接 등)를 거쳐서 선발하는 경우 등이 있다.

3) 特別選拔 모델

이것은 定員의 一部를 ‘特別枠’로 留保시키는 일반의 선발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입학자를 뽑는 것을 가리킨다.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社會人 入學이라든가 歸國 子女의 特別選考 등이 이에 해당하고 留學生을 定員外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 모형에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브리브도라政策(土着의 말레이시아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大學入學 機會를 부여한다), 泰國의 쿼터제(지방 대학은 지방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일정 비율 입학시킨다) 등도 이 모형의 한 보기가 된다. 이 방식은 극히 제한된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한 문제는 적으나, 말레이시아의 브리브도라政策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國內의 民族的多數者를 대상으로 하게 될 때 少數民族側의 강한 반발이 일어나게도 된다.

4) 競爭試驗 모델

가장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발 방법이지만, 실시 형태는 다양해서 全國 統一試驗方式과 大學마다의 個別試驗方式의 두 종류로 크

게 가려 볼 수 있다. 이 두 방식을 綜合·併合해서 입학자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쟁 시험 방식을 쓰는 경우에도 ① 學力 테스트, ② 內申관, ③ 實技, ④ 面接, ⑤ 小論文 등의 각종 선발 방식을 組合해서 選考하는 경우가 많다.

競爭試驗 모델은 公平의 原則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자칫하면 경쟁이 경쟁을 불러 일으켜서 도어 교수가 말하는 '學歷病'을 악화시킬 위험이 늘 뒤따른다. 이 모델을 채택하는한 시험 방식을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수는 있어도 競爭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서 大學 이하의 學校體系에 어떤 형태로든 選拔機能을 강요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게 된다.

5) 資格試驗 모델

이것은 유럽에서 발달한 제도로 中等教育段階의 終了資格試驗(일반적으로 보통 수준과 상급 수준이 있다)에 합격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대학 입학할 허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학측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無試驗' 모델에 가깝지만 자격 획득을 위한 終了試驗 그 자체는 경쟁적이기 때문에 '競爭試驗 모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시아諸國(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서는 전에 宗主國과 유사한 자격 시험 제도를 써왔었지만, 중등교육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資格試驗 모델'을 유지하는 일이 점점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4. 入試改革의 動向

入試改革에 대한 特効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힘겹게 씨름을 하고 있다. 아시아諸國에서도 각 나라의 實情에 따라서 앞서 예들 들은 것과 같은 모델을 알맞게 配合한 改革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學歷病'을 止揚할 수 있는 효과 있는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다음에 아시아 각국에서는 현재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어떠한 改革을 志向하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韓 國

科擧試驗의 傳統을 지닌 한국은 '競爭試驗 모델'의 典型的인 나라의 하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몇 개의 改革이 실시되고 있다. 우선 전국의 4년제 大學(114個校)에 입학할 희망하는 자는 國·公·私立을 막론하고 一律的인 學力考查를 통해서 選考된다. 大學側에서는 大學別 試驗을 賦課할 수가 없다.

작년까지는 學力試驗의 結果를 보고 나서 志望大學을 결정하였으나 이 방식으로는 '눈치작전'이 橫行해서 유명한 대학에도 定員 未達의 현상이 생기는 등의 폐단이 생겼기 때문에 1988년의 入試에서는 순서를 逆으로 해서 '先志願·後試驗'으로 하였다.

한국 大學入試의 제2의 특색은 국가의 강한 지도 아래, 고등학교의 內申관을 總點의 40% 前後로 點數를 換算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대학의 요망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30% 정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大學側의 自主性을 고려해서 選擇科目(제2 외국어·實業) 중 어느 하나를 必須로 指定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15개 대학에서는 내년도부터 제2 외국어를 必須로 課하기로 하였다. 곁들여서 特定科目에 比重을 더해서 點數化하는 '加重値' 방식을 導入하는 일이 결정되어 數學系·體育系·藝術系·外國系 등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는 대학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面接'을 應점의 2~10%까지 點數로 환산하는 대학도 8개교나 되어서 '競爭試驗 모델' 내에서의 多樣化가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中 共

文化大革命期の 중공에서는 일시적이었지만 '추진 모델'을 全國化한다는 實驗을 시도하여 보았지만, 文革에 終止符를 찍고 나서부터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全國 統一入試가 부활되어서 완전히 '競爭入試 모델'로 되돌아갔다. '點數 앞에서는 平等'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기 쉬운 原理가 定着하는 것과 동시에 點數 따기 競爭이라는 폐해가 이미 지적되고 있다. 이미 수년 전(1983년)에 教育部(현재의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競爭加熱 是正措置를 발표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중공의 대학 입시는 전국 통일 입시라는 경쟁 시험 모델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지만, 1985년에 上海市에서는 전국 통일 입시와는 별도로 獨自의入試로 학생의 선발을 개시하는 등, 이른바 開放政策下에서 獨自의入試가 인정되고 있는 일이 注目되고 있다. 또한 경쟁 시험을 전제로 예컨대 思想・學力・身體가 더불어 뛰어난 ‘三好學生’이라든가 직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勞働模範者’ 등에게 우선적으로 入學을 許可하는, 이른바 特別選拔 모델도 併用되고 있다. 또한 遠隔地의 人材를 양성하기 위해 特定分野(예컨대 農林業・地質・水利 등)에 한해서, 邊境地域 出身者를 우선 입학시키는 ‘定向招生’ 政策이라든가, 行政部門・企業體와 大學이 契約을 맺어서 학생을 받아들이는 ‘委託培養’ 制度 등도 인정되고 있어서 경쟁 시험의 틀 안에서 취해지고 있는 彈力化의 試圖는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職場의 추천을 얻고 나서 統一試驗을 치르는 實務經驗者를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추천 모델’의 시도는 부분적으로 오늘날도 계속 행해지고 있다.

3) 말레이시아

이 나라는 전에 宗主國이었던 英國의 영향이 짙게 남아 있어서 1980년대초까지는 中等教育終了試驗의 採點조차 英國에 보내고 있었다. 최근에는 이른바 말레이시아화 政策에 따라서 시험은 말레이시아語로 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한 管理機關으로서 말레이시아 試驗審議會가 創設되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대학 입학에는 上級 中等學校 終了時(Form-5)에 치르는 말레이시아 教育證書試驗과 그에 이어서 Form-6 學年 終了時에 치르는 上級學校 證書試驗의 合格이 基礎資格으로서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경우 ‘資格試驗 모델’을 취하고 있는 것이 큰 특색이다.

또하나 이 나라에서의 대학 입학자 선발에서 주목되는 것은 브리브도라(말레이) 優先政策이라는 ‘特別選拔 모델’을 併用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의 多數派이면서도 그에 부합되는 教育機會가 주어지지 못했던 말레이에게 공

정한 機會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해진 措置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브리브도라를 대상으로 한 中等教育機關(코-스)의 整備, ② 브리브도라에 대한 장학금・學資金 貸與金의 특별 제공, ③ 上級學校 證書가 없는 자에게는 大學內의 豫科課程에 먼저 入學시켜서 거기에서 入學證狀를 取得하게 하는 등의 政策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말레이의 대학 입학 기회가 비약적으로 높아져서 人口構成比에 가까운 정도로 格差의 是正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資格試驗 모델’로 대학 입학자의 선발을 행해왔으나,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정원을 큰 폭으로 웃돌게 됨에 따라서, 1970년대에는 大學을 4개 그룹(水準別의 大學群)으로 갈라서 각각 入試를 행하는 ‘競争試驗 모델’로 바꾸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問題作成이라든가 試驗管理에 經費가 늘어나게 되고, 또 수험생들도 시험을 치르는 데 따르는 旅費費 負擔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여 1984년부터 新制度가 導入되게 되었다.

新制度는 ‘競争試驗 모델’과 ‘資格試驗 모델’을 절충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즉 고등학교 졸업 시험의 성적이 ① 最優秀者(A그룹)에게는 無試驗으로 모든 대학에의 입학을 인정하고, ② 성적이 좀 뒤떨어지는 B그룹의 사람은 國立大學 統一入試에 대한 受験 資格을 주어서 競争試驗으로 선발하며, ③ 成績이 나쁜 C그룹의 사람에게는 國立大學에의 受験을 認定하지 않고 私立大學에 進學하도록 한다. 대충 이와 같은 入試方式이다. 이와 같이 국가에 의한 결단성 있는 統制가 실시로 옮겨진 背景에는 ① 高校卒業生이 增大되어서 大學志願者 數에 알맞은 入學定員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② 그동안 大學의 增設(특히 300校를 넘는 私立大學)에 따르는 教育・研究의 質 維持(quality control)가 急務로 되고 있는 점 등이 숨겨진 事情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設置者別(국립・사립)에 따르는 大學의 種別化(役割 分化)에 대한 批判도 많고, 좁은 門을 뚫고 나가기 위한 受験 競争은 加熱의 추세가 멈추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5) 泰 國

태국은 많은 東南亞 諸國과는 달리 植民地의 경험 없이 獨立을 堅持해 온 나라이다. 따라서 유럽流의 '資格試驗'의 영향은 받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의 根幹으로 되어 있는 國立大學의 전국 통일 입시(學力·實技·適性)제로, 이것은 國立大學 特別委員會와 大學部가 管理 運營하는 '競爭試驗'이다. 따라서 1970년을 起點으로 '特別選拔'의 일종인 쿼터제를 導入해서 경쟁 시험이 지니는 폐해를 除去하도록 힘써 왔다. 즉 완전한 경쟁 시험으로서는 ① 대학생이 首都 방쪽에 집중하고, ② 地方大學도 방쪽 출신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地方大學은 統一入試에 앞서 獨自의 시험을 행해서 地方 出身者를 우선적으로 합격시키는 방법이다. 地方大學의 대부분은 定員의 약 40%를 이 制度에 따라서 入學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하나 태국의 특색은 '無試驗 모델'에 의한 입학자 선발이다. 1970년에 開放大學校로서 創設된 라브카브펜大學과 같은 취지로 1980년에 創設된 스코타이·다마차라드 公開大學에서는 高校 卒業者에 대해서는 입학 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학 입학을 허락한다. 이밖에도 私立大學은 각 대학의 獨自의 시험으로 입학자의 선발을 하고 있다.

6) 日 本

끝으로 日本의 動向을 돌이켜 보기로 한다. 지난 7~8년 동안 大學 入學者 選拔制度는 어지러운 정도로 뒤바뀌고 있어서 安定的인 制度로 定着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國·公立大學의 選拔方法은 混亂의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日本의 大學入試方式은 設置者(國·公立大學과 私立大學)에 따라서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國·公立大學의 경우 '79년부터 國立大學 入試 센터가 主管하는 '共通一次 學力試驗'(5教科 7科目)을 受驗者 全員에게 치르게 한다. 그 成績과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二次 試驗(대학에 따라서 試驗科目 수는 다르다)의 成績을 종합해서

합격 여부를 判定한다. 시험은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실시하고 한 사람이 한 대학밖에는 응시할 수가 없다. 한편 私立大學의 試驗科目 수는 2~3 과목으로 적고 시험 일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몇 대학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한 나라의 入學者 選拔制度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高等學校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一般的·基礎的인 學力到達度를 測定하는 '共通一次 學力試驗'을 거쳐서 大學에 입학하는 자(즉 國·公立大學 入學者)가 전국 대학 입학자의 약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머지 약 80%의 학생들은 私立大學에서 치르는 매우 恣意的인 入學試驗 結果를 가지고 대학 진학을 하고 있다. 文教當局은 이러한 '二重體制'에 대해서 根本的인 改革의 손길을 뻗치려 하고 있지 않다.

정부도 국민도 최대의 관심은 全的으로 國·公立大學의 入試方式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國·公·私立大學을 一貫하는 選拔制度의 수립은 등한시 한다. 따라서 그동안에 취해진 조치는 이른바 共通一次 試驗制度를 부분적으로 손 대는데 힘썼을 뿐이다. 예컨대 '87년도부터 하나의 改革으로 ① 受驗科目 수의 삭감(5 교과 7 과목에서 5 교과 5 과목으로 한 점), ② 受驗 機會의 複數化(國·公立大學의 二次 試驗을 A와 B 두 개 그룹으로 갈라서 2개 대학을 응시할 수 있게 한 점)를 試圖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方式에서는 國·公立大學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문제를 놓고 일대 혼란이 생겨서 또 다른 改革을 檢討해 보지 않을 수 없는 破局에 접어들고 있다.

앞서 검토한 大學入試의 다섯 類型에 비추어 보면 日本의 대학 입시는 '競爭試驗' 모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國·公立大學과 私立大學은 같은 '競爭試驗'이라고는 하지만 同一한 原理下에서 경쟁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二重體制下에서의 競爭試驗 모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또하나의 경향은 '추천 모델'의 증가 추세이지만, 이 또한 日本의 경우 國·公立大學과 私立大學간에 큰 차이가 있다. '84년의 경우 4년제 대학의 입학자 선발에서 차지하는 '추천 입학자'의 비율이 國立大學에서

는 2%에 불과하지만, 公立大學은 4.7%이고 私立大學은 22.8%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日本의 大學 入學者 選拔制度는 高等教育體制를 꿰뚫는 安定的인 制度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能力' 原理와 '公正' 原理의 균형도 잡혀져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조만간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5. 結 論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시아 각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入試方法은 '競爭試驗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威信이 높은 大學(국립대학의 경우가 많다) 일수록 國家統一入試로 입학자 선발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쪽으로는 '무시험 모델'이라든가 '추천 모델' 그리고 '특별 선발 모델'이 併用되고 있다. 결국 大學 教育 機會의 擴大와 大學教育의 質 維持를 어떻게 調和롭게 하는가의 問題를 놓고 나라마다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大學 進學 要求가 앞으로 더욱 더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의 방법은 대폭적인 改編이 예상된다. *

<投 稿 案 內>

「大學教育」 제35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 및 教授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教育 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教授談論 ③ 學科別 教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 (②는 15매 또는 23매)
3. 期 限—1988년 7월 20일
4. 稿 料—매당 2,5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전화 783-3891, 3067)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說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